

순천, 문화도시 조성·콘텐츠 산업 육성 본궤도

사업비 80억 확보...기업지원·인력양성 등 4대 전략 체험 프로그램 강화...순천만 대표 거리 문화 고도화

순천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 도시 성장 체계를 본격화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올해 문화도시 사업비 80억원을 확보하고, 기업지원·인력양성·시민향유·IP육성을 결합한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수도권 콘텐츠 기업 36개사 이전, 신규 IP 58개 창출, 글로벌 콘텐츠 아카데미 교육생 57명 선정, 창작캠프 70명 참여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주말의 광장’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 기반도 마련했다.

순천시 문화도시 사업 총예산은 198억원(2025년 60억원, 2026년 80억원, 2027년 58억원)으로, 2026년은 산업화 전략이 본격 실행되는 핵심 시기다.

순천은 케나즈, 로커즈 등 액티비티와 중소 콘텐츠기업이 집중되며 ‘기획·제작·

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는 기업 성장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콘텐츠 라이선싱 페어’(11월)를 개최해, 지역 기업의 IP 수출 상담과 계약을 지원한다.

또한 ‘순천 IP 창·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웹툰·애니메이션 등 21개사를 선정하고 제작비와 우수작품 고도화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 이전과 함께 교육 시스템도 동시에 구축된다. 지난 1월부터 본격 가동한 ‘글로벌 문화콘텐츠 아카데미’에는 57명의 창작자들이 4개월간 순천에 체류하며 현업 전문가 중심의 실무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2026 순천로드 창작캠프’를 확대해 지역 인재가 콘텐츠 산업으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순천의 문화도시는 산업뿐 아니라 시민 일상 속에서도 완성된다. 지난해 뜨거운



순천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 성장 체계를 본격화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해룡면 신대천에서 열린 주말의광장 행사 모습(왼쪽)과 지난해 8월 정원위케이전에서 창작캠프 참여자들이 멘토의 지도를 받고 있는 모습.

호응을 얻었던 ‘주말의 광장’은 누적 방문자 18만여명, 페이백 이벤트 968명 참여, 약 1억300만원 규모의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기록하며 대표 거리문화 콘텐츠로 자리잡았다.

시는 2026년 잔디로드, 팝업스토어, 콘텐츠

즈 놀이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운영 권역과 규모를 확대해 순천만의 대표 거리문화 브랜드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진망루피’ 캐릭터 협업을 통해 콘텐츠 IP의 경제효과를 확인했으며, 이제는 순천을 대표하는 자체 IP 육성



과 제작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루미·풍이와 국내외 인기 캐릭터 협업을 확대하고, 순천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특화 애니메이션 제작도 추진한다. 완성된 콘텐츠는 OTT 등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문화콘텐츠 산업은 순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성장동력이다”며 “2026년은 순천이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완성형 모델로 도약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군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고흥군, 민선 8기 토론회 성료

건의사항 240건·토론과제 312건 추진사항 보고 공영민 군수 “예산 확보해 미래 사업 관리 집중”

고흥군 군민과의 지역발전 토론회가 민선 8기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변화와 시작을 알리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건의된 주민숙원사업과 군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직접 발굴했던 토론과제의 추진 상황을 상세히 군민들에게 알렸다.

군정 운영 주요성과 보고에서는 ‘민선 8기 군민과 함께 걸어온 길, 고흥의 변화·발전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2030 고흥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우주·드론·스마트팜 3대 미래전략,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 고흥 우주선 철도 건설, 고흥읍~봉래 간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3대 교통인프라 구축,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 돈이 되는 축재, 충직한 복지체계 구축, 대규모 문화·체육행사로 고흥의 품격향상 등 그동안의 여정 등을 공유하며, 앞으로 달라질 고흥의 위상과 변화도 함께 설명을 이어갔다.

또한 군민의 알 권리와 공공성 해소를 위해 처음 시도된 민선 8기 3년간 토론회

를 통해 건의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발전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하며, 군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총 552건의 건의 및 제안사항에 대해 완료와 추진 중인 사업은 추진 과정과 현장 사진을 함께 보여주며 군민의 이해도를 높였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구체적인 향후 계획 및 대안을 상세히 밝히며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3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변화와 시작을 알리는 읍면별 특색 추진과제 보고를 통해 각 지역의 특색과 주민의 염원이 함께 포함돼 앞으로 달라질 지역의 변화를 그려볼 수 있어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읍면별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고흥읍은 활력 넘치는 매력도시 조성, 도양읍은 체류형 관광도시 및 대한민국 대표 미향으로의 도약, 풍양면은 농업 중심 생활상 등 그동안의 여정 등을 공유하며, 앞으로 달라질 고흥의 위상과 변화도 함께 설명을 이어갔다.

민선 8기 4년의 대미를 장식한 ‘2026년 군민과의 지역발전 토론회’는 고흥의 미래를 향한 열기와 진심이 교차하는 현장



공영민 고흥군수가 2026 군민과의 지역발전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었다.

공영민 군수는 현장에서 군민들의 제안 하나하나를 메모해 가며 시종일관 진솔한 답변으로 소통을 주도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시행 초기 다소 생소한 토론회 방식을 지역발전을 향한 군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행정의 실천 의지가 맞닿으며, 군민이 지역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로 발돋움하게 됐다.

앞으로도 군은 군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

지는 군정을 펼쳐나가고 군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행정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군민들의 목소리를 단순한 건의가 아닌 고흥의 미래를 바꿀 비전으로 관리하겠다”며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은 예산을 확보해 즉시 실행에 옮기고 중장기 과제를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해 군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광양시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국민보고회 및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광양, 세계청년리더연맹 혁신평가 ‘대상’

이차전지 소재·원료 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호평

광양시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국민보고회 및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원회(GEC)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WF지자체혁신지수(WFGLII)’를 적용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정·교육 분야 전반의 행정 운영 성과를 분석·평가한 결과로, 평가 기간은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다.

주요 평가항목은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절감과 재정효

율성 제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 추진, 지역사회 안전 시스템 구축 등 10대 부문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차전지 소재·원료 산업 육성, 수소산업 기반 조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 등 시정 전반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 수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대상 수상은 광양시의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방향과 실행 과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장흥무산김, 태국 방콕 1000만달러 수출

동남아 전역 유통망 확대 추진

장흥무산김㈜은 태국 식품기업 Delicake Co.와 손잡고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장흥무산김㈜은 최근 태국 방콕에서 Delicake Co. 및 현지 유통·협력기관인 BKK와 함께 한국 김 제품의 수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3자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마른김과 조미김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하며, 연간 약 60만식(1속당 100매) 규모의 물량을 공급하고, 연간 약 600만달러(한화 약 90억원) 규모의 구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흥무산김㈜과 Delicake Co.는 이번 MOU를 바탕으로 향후 세부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별도의 수출·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태국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무산김 제품의 유통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태국 현지 식품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유통 경쟁력을 갖춘 Delicake Co.와의 협력은 장흥무산김㈜의 안정적인 해외 판로 확보는 물론, K-푸드와 무산김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무산김㈜은 2일 2단계 협의로 장흥군-장흥무산김㈜-태국 김스넥 전문기업 Tao Kae Noi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400만달러 규모의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연간 약 150만식, 1000만달러 규모의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흥=정명수 기자

고흥, 남해안 해상풍력 중심지 도약 시동

‘최대 2Gw 규모’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 친환경 인프라 선제 구축...전용 항만 등 검토도

고흥군이 남해안 해상풍력 중심지 도약에 나선다.

군은 최근 청사 휴양홀에서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다음달 26일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특별법에 맞춰 정부 해상풍력 예비지구의 지정과 공존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해상풍력 개발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연구사업은 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상풍

력 단지의 환경성·경제성·기술성·수용성을 종합 검토하는 사업이다. 고흥군은 최대 2GW 규모의 정부 해상풍력 계획 입지를 개발해 지역 해상풍력 산업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산업 전환의 동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략에 발맞춰 인공지능(AI)·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친환경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전력 계통과 전용 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 남해안 해상풍력 중심지로의 도약을 추진

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전남도·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부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과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산업 등 산업 간 공존 및 지역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착수보고회는 해상풍력 개발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다”며 “해상풍력은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고흥의 미래산업과 경주 여건을 함께 바꾸는 전략사업인 만큼, 전력 계통과 전용 항만 등 핵심 인프라를 선점해 고흥이 남해안 해상풍력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구례,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구례군은 전남도에서 주관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돼 근로자들을 위한 통근버스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구례군은 올해 도비 1억4000만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어온 구례자연드림파크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구례군은 연중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돼, 구례자연드림파크 근로자들의 출퇴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통 여건 개선에 따라 청년층과 인근 지역 구직자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기존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렬 기자 holbul@